정답과 해설

원서 해부 노트 정답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 Part 4 파이널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배점: 4·6·9·11·12·13번 각 6.0점, 나머지 10문항 각 5.4점(합 90점) / 서답형 10점(부분 점수 없음)

번호	정답	해설
1	③	170쪽 ¶1 저자의 결론 — 공헌은 지우지 말고 업적과 인종차별을 함께 담아 섬세한 대화 속에서 인정. ①은 저자가 하지 않은 말, ②는 정반대.
2	①	162쪽 ¶3~¶4 — 이중 국적이 없던 사크르가 박탈로 무국적자가 됨. ③은 대법원 판결(정부에 그런 권한 없음)과 반대.
3	②	163쪽 ¶5 — 선례의 위험 → 재판 없는 박탈을 하지 않는 원칙이 최선일 수도(may). ①은 양보만 키운 오답, ③ 세계 시민권은 조건일 뿐.
4	⑤	161쪽 ¶4 — 자기는 투표하지 않고 남들의 투표가 지키는 민주주의의 혜택만 누림. ③은 161쪽 ¶6의 다른 투표 이유.
5	④	169쪽 ¶6 — 도덕 기준이 바뀌면 기리는 인물이 상징하는 바도 달라진다. ①은 졸업과 무관, ⑤는 지문에 없는 말.
6	④	①②③⑤는 윌슨, ④는 윌슨이 물려받은 연방 정부의 흑인 직원들(⑤ 뒤 them은 밑줄 아님).
7	①	160쪽 ¶2. ② 1960년 이후 '최고' ③ 70%가 '지지' ④ 대개 40% 미만 ⑤ 1% 미만.
8	⑤	팔레 윌슨 = 지금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본부(169쪽 ¶2). '유엔의 본부'는 전신(국제연맹)에서 만든 함정.
9	②	시민권이 박탈'되는' 것 → has been revoked. ③ rest on + which ④ be unable to V ⑤ 수동 be abused는 맞다.
10	③	(A) emerge는 자동사 → 수동 불가 (B) 요구가 받아들여지다 → were met (C) rule that + (should) 원형 → take.
11	④	무효표가 투표율 차이를 '상쇄하기'(offsetting)에는 턱없이 모자람 → doubling은 부적절. ⑤ alone은 맞다.
12	②	많은 사람이 함께 투표하지 않으면 → 남은 소수가 불만인 다수의 정부를 고른다. ①은 남은 표의 비중이 오히려 커지므로 틀림, ⑤는 반대.
13	④	④ 앞 = 테러 조직 가담이 더 나쁠 여지와 까닭, 뒤 by contrast · no comparable link가 주어진 문장을 받는다.
14	③	투표의 여러 이유 · 의무 투표(161쪽 ¶5~¶7) 사이에 「Is Citizenship a Right?」의 영국 박탈 권한(162쪽 ¶2).
15	⑤	2005년 40% → (C) Consequently 카친스키 총리 → (B) Two years later 불참자의 불만 → (A) 54% · 정부 참패.
16	①	20번 중 19번 '옳아도' → right, 권리가 '절대적'이라 주장하기 어렵다 → absolute. ③ negotiable은 뜻이 반대가 된다.
서답형	JUSTICE	(1) J at least 95% (2) U the 1920s (3) S 1918 (4) T 175 (5) I 1948 (6) C False (7) E New Orleans → J-U-S-T-I-C-E(정의). 함정: Y. 62% · F. 70% · R. the 1960s · X. 2005 · P. 1961 · H. 52 · L. 1913 · G. 2020 · B. True · W. Washington · N. Princeton.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오스트레일리아 시민으로서 나는 열여덟 살이 된 뒤로 모든 연방 선거에서 투표해 왔다. (as(자격) / 현재완료 + since)

→ As an Australian citizen, I have voted in every federal election since I turned 18.

02 많은 사람이 투표하지 않으면, 인구의 소수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여 불만을 품은 다수를 남길 수 있다. (결과의 분사구문 leaving)

→ If many people do not vote, a minority of the population can determine a country's future, leaving a discontented majority.

03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투표해 주기를 바라면서 무임승차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each of us + 단수 동사 / while + -ing)

→ Each of us faces the temptation to get a free ride, while hoping that enough other people will vote.

04 낮은 투표율을 걱정하는 나라들은 오스트레일리아 모델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과거분사 후치 / would do well to V)

→ Countries worried about low voter turnout would do well to consider the Australian model.

05 시민권을 박탈함으로써 영국 정부는 그를 무국적자로 만들었다. (by + -ing / strip A of B / make + O + 형용사)

→ By stripping him of citizenship, the UK government made him stateless.

06 미국에 적대적인 테러 조직에 가담하는 것은 외국 군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Arguably / 동명사 주어 / even + 비교급)

→ Arguably, joining a terrorist organization hostile to the United States is even worse than joining a foreign army.

07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항소한다면, 정부는 결정의 근거가 된 증거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If 생략 도치(Should + S + 원형) / 전치사 + 관계대명사)

→ Should the person whose citizenship is revoked mount an appeal, the government is not required to disclose the evidence on which it has based its decision.

08 세계 시민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법 심리 없이 시민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가주어 it / 동격 that / be to V(의무))

→ In the absence of global citizenship, it may be best to retain the principle that citizenship is not to be revoked without a judicial hearing.

09 그는 외교 정책이 도덕적 가치에 따라 이끌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insist that + (should) 원형 / 수동)

→ He insisted that foreign policy be guided by moral values.

10 그들을 위해, 그들이 적어도 자기 시대에 널리 퍼진 기준보다 나쁘지는 않았다고 변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might(가능성) / no worse than / 관계대명사 that)

→ One might plead on their behalf that they were at least no worse than the standards that prevailed in their time.

11 2020년이 되어서야 프린스턴 대학은 그의 인종 분리 정책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딴 스쿨을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It was not until ~ that / make + it + 형용사 + to V / have + O + p.p.)

→ **It was not until 2020 that Princeton University acknowledged that his segregationist policies made it inappropriate to have a school named after him.**

12 윌슨의 공헌은 역사에서 지워질 수도 없고 지워져서도 안 된다. (조동사 + 수동(cannot and should not be p.p.))

→ **Wilson's contributions cannot and should not be erased from history.**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선거의 투표율 / 저자가 투표를 시작한 나이	연방 선거 대부분에서 적어도 95% / 18세
미국 2020년 투표율 / 임기 중간의 의회 선거 투표율	62%(1960년 이후 최고) / 대개 40% 미만
의무 투표가 생긴 때 · 그때의 투표율 / 지지율 / 벌금 대상	1920년대 · 60% 미만 / 약 70% / 1% 미만
오스트레일리아보다 먼저 의무 투표를 도입한 나라	벨기에 · 아르헨티나
폴란드 2005년 투표율 / 2년 뒤 투표율	겨우 40% / 54% 가까이
총리가 된 사람 / 그쪽이 받은 표 · 투표 자격자 수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 600만 표 · 3,000만 명
영국이 박탈 권한을 가진 해 / 박탈이 잦아진 시점(그 전까지는 거의 안 씀)	1918년 / 2005년 런던 교통망 폭탄 공격 때부터
2021년 말까지 박탈된 사람 수	175명
시민권을 '특권'이라 한 사람 · 직책	테리사 메이 · 내무장관
사크르의 부모가 온 나라 / 그가 살던 곳	이집트 / 소말리아
미국의 시민권 박탈 사유 둘	시민권 신청 때의 사기 · 다른 나라 군대 복무
무국적 감축에 관한 유엔 협약의 해	1961년
가정한 정부의 정확도 / 런던 공격의 희생자	20번 중 19번 / 무고한 52명(폭탄 공격범 4명도 사망)
옛 소련이 추방한 시인	조지프 브로드스키(뒷날 노벨상 수상자)
항의가 일어난 때 · 강의 / 항의를 이끈 단체	2015년 가을 · 실천 윤리학 / 흑인 정의 연맹
윌슨이 대통령이 된 해 / 프린스턴에서의 직책	1913년 / 총장
국제연맹 본부(기간 · 건물)	1920~1936년 · 제네바의 팔레 윌슨
조지 워싱턴 초등학교의 이름을 바꾼 곳	뉴올리언스의 교육위원회
윌슨의 이름이 스쿨에 붙은 해 / 이름을 뺀 해	1948년 / 2020년

4-3. 통합 사고 문제 – 세 편을 잇는 자리

문제

「Why Vote?」에서 저자는 자기 한 표가 결과에 보태는 몫이 아주 작아 우리 각자가 무임승차의 유혹을 받는다고 짚었다. 아래 빈칸 문장은 그 대목이다. 다른 두 편에도 이 낱말(또는 그 형용사형)과 이어지는 대목이 있다. 빈칸에 들어갈 영어 한 단어를 쓰고, 그 근거를 「Is Citizenship a Right?」와 「Should We Honor Racists?」에서 하나씩 찾아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해당 편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시민이 함께 지키는 것: Yet since our own vote makes such a tiny contribution to the outcome, each of us still faces the temptation to get a free ride, not bothering to vote while hoping that enough other people will vote to keep _____ robust and to elect a government that is responsive to the views of a majority of citizens.

빈칸: democracy (161쪽 ¶4. democracy만 만점, democratic처럼 품사가 틀리면 감점)
근거 1 (예시): In 'Is Citizenship a Right?', the author warns that when a democratic government starts to revoke citizenship and make people stateless, it sets a precedent for authoritarian regimes that wish to get rid of dissidents, so it may be best to keep the principle that citizenship is not to be revoked without a judicial hearing.
근거 2 (예시): In 'Should We Honor Racists?', Wilson advocated democracy and national self-determination in Europe after World War I, yet his policies for Blacks were reactionary, and the author holds that both his achievements and his contribution to America's racist policies should be recognized in a nuanced conversation.
채점: 단어(democracy) + 「Why Vote?」 밖의 두 편에서 근거를 하나씩 + 해당 편 어휘(democratic government, authoritarian regimes, precedent, stateless, judicial hearing, Wilson, self-determination, Fourteen Points, segregation, nuanced conversation 등) 포함. 「Should We Honor Racists?」에서는 윙고의 책(『Veil Politics in Liberal Democratic States』)이 말하는 정치적 베일 · 시민의 덕을 심는 상징(169쪽 ¶5)을 근거로 써도 인정. 「Is Citizenship a Right?」에서 저자가 시민권 박탈을 어떤 경우에도 금지해야 한다고 단정했다고 쓰면 감점 – 저자는 테러의 훨씬 큰 해악을 무시할 수 없다고 인정한 뒤, 세계 시민권이 없는 지금은 재판 없이 박탈하지 않는 원칙이 최선일 수 있다(may)고 했다(163쪽 ¶5). 메이의 '특권' 발언이나 정부들의 대응(163쪽 ¶1)을 저자의 주장으로 쓰면 감점. 「Should We Honor Racists?」에서 저자가 윌슨의 공헌을 지워야 한다고 했다고 쓰면 감점(170쪽 ¶1). 이 문제는 저자의 논증을 정리하는 것이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니다.